

프랑스 Kermel사의 미채(迷彩) 전투복 FELIN에 채용

프랑스군은 FELIN(Fantassin a Equipements et Liaisons Integrees) 계획의 일환으로 병사의 장비에 Kermel V50 및 VMC40 원단을 채용했다. 최고의 쾌적성, 원면 착색에 의한 우수한 견뢰성, 발군의 내화성을 겸비한 이 2종류의 원단은 미채 전투복 표준을 향상시켰다.



전자는 하복이며, 후자는 동복인 이들 전투복은 프랑스군이 행한 시험에 합격하여 2008년말부터 제1대대가 사용할 예정이다.

Kermel V50은 이상적이고 지속적인 전투복이다. Kermel 섬유의 유연함과 FR 비스코스의 흡수 능력에 의해 최고의 쾌적성이 얻어진다. 우수한 보온성과 함께 이러한 특성에 의해 이 전투복은 여름/미드 시즌 상황에 최적으로 되었다.

Kermel VMC40은 미채 원단의 최신 혁신 제품으로 다습하고 한랭한 기후에 있어서 이상적이며 촉감이 극히 유연한 소재로, 높은 내구성이 있다. 또한 이 새로운 혼방물은 유연함, 통습성, 내화성이 이상적으로 조합되어 있다.

본래 불연성인 Kermel 원단은 실제의 시험에서 우수한 염색 견뢰성을 나타냈다. 이 시험은 가장 가혹한 조건 하에서 행해졌지만, 전투복은 세탁을 반복해도 미채색의 색락이 없다. 보온성도 성능에 변화는 없었다.

또한 Kermel의 전체의 버전은 모든 타입의 미채복에 대응할 수 있다.